

검찰-고용부-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 박창환 기자 | ⓒ 승인 2022.01.14 11:02



본격적인 설명회에 앞서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 안전보건공단 제공

검찰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사업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법적용을 준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박윤석),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김덕곤),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고광재)는 13일 평택상공회의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평택, 안성지역 사업장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전달됐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설을,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가상사례 연구 내용을,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각각 전달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여러 궁금증과 문제 등을 잘 살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입법취지에 따라 엄정하면서도 합리적인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관내 건설현장 98개소와 자율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MOU 체결할 예정이며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는 현장지원단을 통해 자율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